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중·고등학교 미술감상 교육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적용과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정 하 림

# 중·고등학교 미술감상 교육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적용과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Value  
and the Application of Havruta Learning Method  
in the Art Appreciation Educ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201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정 하 림

# 중·고등학교 미술감상 교육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적용과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정 하 림

정하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홍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유 섭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iii
그림 목차 .....	iv
ABSTRACT .....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미술감상 교육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	5
제1절 미술감상 교육의 이해 .....	5
1. 미술감상의 개념 .....	5
2. 미술감상의 교육적 의의 .....	7
3. 미술감상의 유형 및 방법 .....	10
제2절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이해 .....	13
1.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개념 및 등장배경 .....	13
2.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원리 및 교육적 효과 .....	16

제3장 미술감상 교육에서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의 교육적 가치 .....	30
제1절 미술감상 교육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연계성 .....	30
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 .....	30
2. 미술감상 교육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필요성 .....	39
제2절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교육의 실제 .....	41
1. 교수-학습 과정안 계획 .....	42
2. 차시별 수업 모형에 따른 흐름 .....	43
3. 교수-학습 과정안 .....	45
제4장 결론 .....	55
참고문헌 .....	57

## 표 목차

<표-1> 미술감상 내용 .....	11
<표-2> 하브루타(Havruta)의 토론 원리 Kent(2010) .....	17
<표-3>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절차 .....	19
<표-4>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원리 .....	19
<표-5>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	21
<표-6>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	22
<표-7>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	23
<표-8>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	24
<표-9> 문제만들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	25
<표-10> 학습 효율성 비교(공부 24시간 후) .....	28
<표-11>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핵심역량의 정의 .....	31
<표-12>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내용체계 .....	33
<표-13>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 비교 .....	36
<표-14> 교육과정 미술교과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 비교 .....	38
<표-15>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감상수업의 차시별 학습 내용 ..	42
<표-16>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를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의 흐름 .....	44
<표-17>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를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의 흐름 .....	44
<표-18>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를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의 흐름 .....	45
<표-19>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	47
<표-20>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 .....	51
<표-21>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 .....	53



## 그림 목차

<그림-1> 피카소 「게르니카」 .....	46
<그림-2> 윤두서 자화상 .....	50
<그림-3> 뒤러 자화상 .....	50
<그림-4> 바스키아 「속물들」 .....	52
<그림-5> 잭슨 폴락 「No.5」 .....	52

##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al Value and the Application of Havruta Learning Method in the Art Appreciation Educ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ung Harim

Advisor

: Prof. Cho Yoonsung Ph.D.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urrent education circles emphasize education that suits the changing times. We are trying to overcome many problems in the educational field. With the frequent changes in the admission system, the emergence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expansion of process-oriented evaluations, not result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present era is demanding changes in classes. Many experts stress the need for creativity,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Education in this era should be changed to foster thinking power that machines cannot replace.

Art education is also changing. We have access to numerous images through various media. The ability to read visual phenomena correctly is essential a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s emphasized. In the 2015 curriculum, education targets are also revised and presented, and teachers are required to teach at school sites.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emphasis of art education was changing from expression-oriented practical classes to systematic appreciation classes, and suggested classes to satisfy this desire by apply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after examining the necessity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Revealing that the Havruta learning method is an efficient method of learning in the present era, the art appreciation course proposal apply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was proposed based on the link between the 2015 revised art course and the Havruta learning method.

This study utilized the works of art appreciation, research papers and educational research results related to the Havruta learning method. And it was conducted as a general discuss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a literature study based on art and curriculum.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art appreciation class apply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is an effective learning method in which learners reason deeply about art works, express appreciation on their own, and improve aesthetic eye and critical ability. It is possible to discover new aesthetic elements that cannot be found when appreciating alone, and active learning can be achieved.

Second, the Havruta Learning Act is a positive learning method that helps achieve the vis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achieves key competences. The vision fo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s "the training of creative and fusion talents demanded by the future society."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Havruta learning method in Chapter 2 of the study, which shows that the Havruta learning method is an effective learning method for creativity and fusion. We have also confirmed that the learner-oriented voluntary learning

method, the Havruta learning method, is also positive in achieving the vision of "implementation of happy learn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learning experience."

Third, the Havruta learning method has similarities to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and helps improve art and teaching ability. Chapter 3 of the present study revealed similarities between the 2015 art and curriculum and the character of the Havruta learning method and confirmed that it helped to develop art and teaching skills.

Fourth, art appreciation classes can be conducted us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tailored to the art and content system.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art appreciation classes could be conducted by apply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by presenting a three-time course plan centered on questions, comparison and debate.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Havruta learning method is great, but it should not be argued that the Havruta activity is the only thing in all subjects, all classes. Reversely, a number of classroom characteristics, such as learning, flip-running, and project learning, and a number of teaching methods suitable for the class topic should be utilized. It is not suitable for rapid progress or simple rote learning just for evaluation. It is a method of learning that requires time to form a solid schema and to understand in-depth learn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should be treated as a long-term eye for lifelong education as a learning method that enhances the ability to understand knowledge and learn inner motivation, increase creativity and foster character.

We hope that this research material will help students realize the importance of art appreciation education and realize the goals of the curriculum, and that art and other curricular applications of the Havruta learning method will be developed and follow-up studies will be actively conducted to enable students to enjoy learning.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매년 초 경제학자, 기업인, 정치인, 저널리스트들이 모여 범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다보스포럼이 열린다. 그곳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 발명의 제1차 산업혁명에서,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가 발명된 제2차 산업혁명, 컴퓨터의 등장으로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무선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사물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IoT의 발전,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는 인공지능(AI)의 확대까지 이뤄지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과 한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열었다.

교육계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에 맞는 변화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등장,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확대 등으로 현시대의 교육환경은 수업의 변화를 요구한다. 정답만 요구하는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 시대가 기대하는 인재를 키우기에 역부족이다. 창의력, 소통, 협력, 문제해결의 4C<sup>1)</sup>능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힘이 있는 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술 교육도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미술 작품과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전 세계 유명한 미술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수많은 시각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

1) 4C란, communication skills(소통),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collaboration(협력), creativity(창의성)를 말한다. AMA(미국경영연합회) 2010 Critical Skills Survey(AMA회원 및 고객 회사의 2,115명의 관리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4C를 꼽았다. [communication skills(80.4%), critical thinking(72.4%), collaboration(71.2%), creativity(57.3%)]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시각적 소통 능력’이라 정의하고 강조하며 미술 수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미술 수업은 표현 위주, 주입식 수업으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수업 이후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접하는 미술은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미술이다. 이러한 미술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미술 작품을 평가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은 변화하는 시대와 교육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미술감상 수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에서 교사가 말하면 학생들은 듣고만 있는 수동적인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미술감상 수업에 적용하였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미술감상 영역에 적용시켜 작가의 의도와 재료선택의 이유를 파악하고, 수동적인 작품 감상을 넘어 자기주도적인 미술감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통한 미술감상 수업은 작품의 의미나 가치를 알기 위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장 좋은 결론을 만들어 가는 수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감상 능력과 비평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미술 작품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며, 적절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자신과 다르게 보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미술감상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연계성을 서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술감상 수업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결론 및 제언이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은 학습자가 미술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감상을 표현하며, 미적 안목과 비평능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미술감상 수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미술감상 수업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삶 속에서 더욱 풍요로운 미술 문화 향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변화하는 시대와 교육과정에 맞는 미술감상 수업과정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미술감상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연계성을 연구하고 미술감상 교육에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하고 그에 맞는 수업과정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로 제1장은 서론으로 현 시대에 맞는 미술감상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했다. 이에 맞는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전제적인 흐름을 설명하였다.

둘째,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서술한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미술감상 교육의 이해를 위해 미술감상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를 서술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상 방법을 알아본다. 제2절에서는 유대인의 전통 학습 방법인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이해를 위해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개념 및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원리와 교육적 효과를 서술한다.

셋째, 제3장 제1절은 미술감상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교육적 가치를 서술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감상 영역을 살펴보고 하브루타(Havruta)학습법과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감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제2절은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을 총평하여 결론을 서술하였다.



## 제2장 미술감상 교육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 제1절 미술감상 교육의 이해

본 절은 미술감상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술하였다. 미술감상 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미술감상의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술감상의 개념

미술 교육은 방법적인 면에서 이해와 표현 그리고 감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술의 이해는 미술의 시각적인 현상이나 형식, 미술 문화, 표현 주제와 기법, 재료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의 표현은 자신의 내면을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재료를 이용해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감상은 작품이나 조형물에 대해 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미술 교육은 이해, 표현, 감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총괄한다.

이 중 미술감상은 구체적인 감상 대상을 보고 느끼며 그 가치를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평가하는 점에서 미술의 이해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이나 자연에 대해 그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작품이나 자연을 감상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미적 대상, 예술 작품, 자연물 등 구체적인 대상을 보고 느끼며 그 가치를 평가 이해하는 활동이 미술감상이라 할 수 있다.<sup>2)</sup>

류지영(2011)은 감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감상은 향수나 관조와 같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가치 판단을 통해

2)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미술관교육학, 교육과학사』 2000, p.230

내면적 창조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적 가치의 끊임없는 확인, 재평가, 변경, 완성, 수정, 이해의 심화 등의 단계를 거치고 다시 순화하며 의식 내용의 생산을 전제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말한다.”<sup>3)</sup> 임정기(2006)는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외형으로 드러난 형태에 미묘하게 반응하여 조형적으로 분별하며, 심리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을 잘 분별함을 뜻한다.”라고 정의했다.<sup>4)</sup> 웹 마스터 사전에 의하면 “잘 생각하는 것, 가치, 기쁨, 대상의 질이나 값어치를 가늠하는 것, 바르게 평가하는 것, 온전하게 또는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참고 문헌을 토대로 살펴보면 감상은 예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식별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감각적인 구조와 독창적인 내용을 즐기는 미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술감상은 감성에 의한 정서적 반응이 전제된다. 형과 색채, 구성, 통일, 균형, 움직임, 조형요소, 표현방법 등 형식적 분석을 기초로 하면서 작품의 소재와 주제, 사회 문화적 배경, 미술사적 위치와 평가 및 반성 등의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sup>6)</sup> 감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며 평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적 대상에 대한 향수나 관조와 같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개념임과 동시에 가치 판단을 통한 내면적 창조로 연결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감상은 정의적이고 인지적인 활동이며 교육적으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수용과 향수라는 단어로 인해 미술감상활동을 수동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가는 창조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하여 창의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창의적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재창조한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감상은 예술을 감수(感受)하고 음미할 수 있으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라 할 수

3) 류지영, 『미술감상 교육 수업의 구조와 감상 기술』 미진사, 2011, p.14

4) 임정기, 이성도, 김광희 공저,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pp.263~264

5) 웹 마스터 사전

6) 류지영, 상계서, p.30~31

있다. 여기서 감수는 미적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인식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렇기에 감상은 예술작품에 깊숙하게 몰입하여 창작의 결과로 나타난 형상의 추상상(追想狀) 내지는 추체험(追體驗)하는, 감각적 세계를 초월한 추창조의 정신 작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감상은 창작과 동일하게 적극적인 혼과 정신을 집중하는 전체 인격적인 활동이다.<sup>7)</sup> 오늘날 미술 교육에서 감상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교육적인 의의 또한 크게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다.

## 2. 미술감상의 교육적 의의

오늘날 미술감상 교육은 학습자가 작품을 대할 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보고 느끼며 미적 가치에 대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능력을 양성하고 미적 감수성을 키움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감상 교육은 감상자의 감수성을 키워주고 작품을 대하는 안목과 판단력, 시각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과거의 미술 교육에서의 감상지도는 정서함양, 심미적 능력 양성, 고상한 취미 만들기 등 교양을 가르치는 정도로 그 의의를 규정하였다. 반면 최근 미술 감상 교육에서는 예술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그 가치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즉 ‘미적 지각 능력 양성’과 ‘시각 세계의 안목 함양’ 또는 ‘조형적 모순을 아는 능력의 양성’이나 ‘미술 작품이 지닌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양성’, ‘조형적인 가치 관한 의식의 각성’ 등 다양한 이론을 펼치며 감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sup>8)</sup>

7) 박희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사, 2003, p.25

8) 상계서, pp.25-34

미술감상 교육은 우리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미적 요소를 찾고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며, 예술을 인간과 자연, 사회와 역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데 교육적 의의가 있다. 오늘날 교육과정에서 미술감상이나 이해, 시각적 소통 능력을 강조하며 감상교육의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9)</sup>

첫째, 미술감상은 한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형성시키는 창조적 교육이다. 예술 작품은 시각적 형상성뿐만 아니라 심미성을 가진다. 심미란 아름다움을 살피고 미추를 분별하는 감상을 뜻한다. 심미적인 감상은 오감 뿐 아니라 모든 감각에 대한 지각 활동이다. 이러한 심미적 감상은 우선 예술 작품을 정서적으로 마음을 움직인 후, 이성적인 사고와 사상적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즉, 감상교육은 감상과 비평 활동을 통해 자신을 재창조하는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sup>10)</sup>

둘째, 미술감상은 인간의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 데 적합한 교육이다. 감성은 다양한 사상으로부터 이에 대한 좋은 점과 미적 요소 등 가치 있는 것을 느끼고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감성을 토대로 대상이 지닌 좋은 점과 아름다운 점을 이해하며 수용하고 더 나아가 이를 판단하여 비판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기를 수 있고 나아가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인간성을 기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인성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미술감상은 시각적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학교 교육 활동에서 감상이라 하면 주로 미술작품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감상의 대상이 순수 미술 작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보다 확대되어야 할 상황에 와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각종 시각적 이미지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문, 잡지,

9) 신화윤,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중학교 미술감상지도 연계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29

10) 박휘락, 전계서, pp.25-34

광고,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인쇄 매체 뿐 아니라 TV, 영화, 애니메이션, 전자오락, 인터넷 등의 영상 매체가 있다. 이러한 매체는 수용자의 선호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량 정보의 형태로 엄습해 우리의 생활과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보의 범람 속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이를 구분하고 올바른 수용 자세를 길러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시각 미디어에 관한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sup>11)</sup>를 키워주어야 한다. 미술감상 교육은 이러한 시각적 정보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교육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시각적 소통 능력’이라 정의하며 미술감상 영역에서 이러한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미술감상은 다양한 인간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각하고 소통하는 교육이다. 감상은 자신을 이해하는 활동인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예술 작품은 작가의 삶과 사상에 대한 방식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관이 다른 또 하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며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새롭게 창출하고 한층 더 높은 자기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올바른 자아 형성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미술감상은 표현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심화시키는 교육이다. 감상과 표현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상호 상승작용의 효과를 가진다. 즉 감상능력은 표현능력을 심화시키고 표현능력은 감상능력을 향상 시킨다. 또한 감상을 통한 내면화 활동의 발견과 미적 대상으로부터 받는 향수는 자기표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교의 감상교육은 표현활동과 깊은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미술감상을 통해 미술 소비자를 양성 할 수 있다. 소수에 불과한 미

---

11)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 : 시각적 문해력으로 번역되는 비주얼 리터러시는 시각적 메시지를 인식, 분석, 평가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미지와 영상을 미적 대상으로 넘어 소통의 중심으로 바라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술작가의 양성만이 아니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비자로서의 교육에 의미가 있다.<sup>12)</sup> 대부분의 학생들은 향후에 미술 전문가보다는 관람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삶을 보다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술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감상 능력의 향상은 혼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다양한 감상 방법을 활용하여 보는 눈을 키우는 효율적인 감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금까지 미술감상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시각 매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은 올바른 시각적 소통 능력과 비판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맞는 적절한 미술감상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감성적인 능력을 키워 주는 학습자 중심의 감상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미술 교육은 표현활동에 편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표현과 감상의 조화와 균형을 지키고 예술을 지각하고 이해, 수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미술감상의 유형 및 방법

미술감상의 방법은 절대적인 규칙이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품이 가지는 미적 가치는 감상자의 보는 능력에 따라 발견할 수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어떠한 감상 학습 방법이 좋을지 먼저 판단하고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미술 작품의 구성 요소는 형식과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된다. 작품의 색과 재료, 표현 기술에 의한 '형식'과 소재를 재료로 하여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감상의 내용에 있어 학자들은 감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2) 최순실, 『감상의 방법 및 관점을 적용한 작품 감상 지도의 방법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6

아이즈너(Elict W.Eisner)는 재료를 다루는 기법적인 면, 형태를 아름답게 또는 쓸모 있게 하는 구성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구현하는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브라우디(H.S.Broudy)는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감각적인 생동감, 작품의 미적 구성이나 선, 색, 명암 등의 형태, 재료나 용구를 다루는 기법, 작품이 전달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표현성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커먼(J.Ackerman)은 그림에 나타난 감정, 기법, 형태, 의미 등을 감상 내용으로 삼고 있다.<sup>13)</sup>

학자명	감상내용
아이즈너 (Elict W.Eis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를 다루는 기법적인 면</li> <li>- 형태를 아름답게, 또는 쓸모 있게 하는 미적 구성력</li> <li>-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구성하는 창의성</li> </ul>
브라우디 (H.S.Bro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감각적인 생동감</li> <li>- 작품의 미적 구성이나 선, 색, 명암 등의 형태</li> <li>- 재료나 용구를 다루는 기법</li> <li>-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표현성</li> </ul>
애커먼 (J.Acker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기법, 형태, 의미</li> </ul>

<표-1> 미술감상 내용

미술감상의 다양한 과정을 살펴보면 펠트만(E.B.Feldman)은 미술감상 과정을 기술, 분석, 해석, 형식의 단계로 구분하여 명료한 미술감상법을 제시하였다. 앤더슨(T.Anderson)은 반응형성, 분석, 해석, 판단의 교육적 미술 비평의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sup>14)</sup> 학자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감상자의 작품 분석, 해석, 평가와 같은 단계로 나누며 작품의 요소, 재료, 작가의 의도 등을 다룸으로 미술감상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13)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 미술교육학 제3판, 교육과학사, 2008, pp.313~314.

14) 박휘락, 전계서, pp.229~230

에 교사들은 이러한 감상 과정을 토대로 수업에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감상의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적 감상이 있다. 수용적 감상은 수용자 중심의 반응과 해석을 말한다. 작품으로부터 감상자가 적극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낸다. 수용미학은 1960년대 말 서독의 문학계에서 부터 시작된 문학 연구의 방법론 중 하나이다.<sup>15)</sup>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감상하는 것이 아닌 수용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감상 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이 있다. 직관적 감상은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연계 되는 이성적 사고 이전에 일어나는 인식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분석 감상은 작품 내의 주제나 소재를 파악하고 색, 선, 형태의 조형 요소를 탐색하여 작품의 미적, 조형적 특질을 관찰하는 감상 방법을 말한다.

셋째, 단독감상과 비교 감상이 있다. 하나의 작품이나 같은 요소를 지닌 작품만 감상하는 단독 감상법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작품을 제시하고 비교, 대조를 통해 작품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감상 방법이 있다.

넷째, 전체 감상과 세부 감상이 있다. 전체를 본 다음 세부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작품의 주제나 소재 등의 전체적인 표현양식을 보고 세부적인 붓 터치, 질감, 등을 분석하며 감상하는 방법이다.<sup>16)</sup>

이와 같이 미술감상의 일반적인 방법을 기본으로 더 효과적인 미술감상을 위한 여러 가지 감상법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 인터비주얼과정, 스토리텔링통한 감상, 미술관 연계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학교현장에서 미술감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도혜리, 『수용 미학적 미술감상 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4

16) 박휘락, 전계서, p.143



## 제2절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이해

본 절에서는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이해를 서술하였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알아보고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특징과 교육적 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개념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서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쟁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교육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전통은 유대인의 학술원이며 탈무드의 요람인 예쉬바(Yeshiva)를 탄생하게 했다. 예쉬바(Yeshiva)는 ‘앉아 있다’라는 뜻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장소인 랍비학교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회당(會堂)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서로 짝을 지어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포함한다.<sup>17)</sup>

하브루타(Havruta)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버(Haver)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친구라는 뜻이다.<sup>18)</sup> 따라서 하브루타(Havruta)의 본래 단어 뜻은 토론을 하는 상대, 파트너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것이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학습방법을 뜻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토론하는 상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짝과 토론하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

17) 이흥주, 『하브루타(Havruta)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p.7

18) 헤즈키 아리엘리, 김지자, 『탈무드 하브루타(Havruta)러닝』 국제인재개발센터, 2015, p.18

도 하다.<sup>19)</sup>

Kent & Allison(2012)은 두 명이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며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이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며, 이는 유대인의 전통 교육방식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학습법이라고 하였다.

정선영, 최현정(2015)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유대인 회당(Beit Midrash)에서 이루어졌던 학습 방법으로 둘이 모이면 장소를 불문하고 그들의 토라와 탈무드를 시작으로 서로의 호기심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 연속적으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sup>20)</sup>

전성수(2014)는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토론과 논쟁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질문으로 수업하는 것, 학생끼리 짝을 지어 가르치면서 토론하는 것 등 모두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라고 하였다.

## 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등장 배경

현재 유대인은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이 흩어져(디아스포라) 살고 있다. 이스라엘에 약 650만 명이 살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약 900만 명이다. 그 중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약 600만 명으로 생존하는 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가 해외에 살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다.<sup>21)</sup>

수천 년의 긴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은 국가를 수립한 시기는 1948년으로 개국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양성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열악한 배경의 유대인들의 성장과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

19) 전성수·양동일,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Havruta)』 라이온북스, 2014, p.114~115

20) 정선영, 최현정, 『이스라엘의 하브루타식 온라인 토론활동이 대학생들의 토론능력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p.53

21) 김형종, 『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독교신문사, p.15

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sup>22)</sup> BC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 그들은 2,5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는다. 대개 나라가 망하면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나라의 역사는 사라지고 만다. 유대인들이 약 2,500년 동안 흩어져 그 나라에 적응하며 살면서도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행해지는 그들만의 전통 교육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건국 당시 87만 명 수준이던 이스라엘의 인구는 각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775만 명이 되었다. 이 중 유대인은 약 584만 명이고, 이슬람 159만 명, 드루드족 외 소수민족이 32만 명이다.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190만 명의 적과 함께 살고 있고, 밖에는 3억 명에 이르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 유치원이나 학교는 그야말로 다양한 언어와 인종,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모일 수 밖에 없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고, 정서가 맞지 않아 다툼이 많다. 때문에 교사는 그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로 수업을 한다.<sup>24)</sup>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으나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오랫동안의 역사와 함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천 년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들만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그들만의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sup>25)</sup>

수천 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큰 기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 왔을 때 일어난다. 미국, 인도, 독일, 소련, 중국, 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독립을 한 해에

22) 강은정, 『하브루타(Havruta)수업이 고등학교 학생의 지리과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8

23) 김형중, 『테필린』 솔로몬출판, 2014, p.16

24) 전성수, 『하브루타(Havruta)로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낸 유대인 엄마처럼 격려+질문으로 답하라』 국민출판, 2014, p.47

25) 정소임, 『유대인의 '탈무드 하브루타(Havruta)에 함축된' 존재를 위한 학습'의 의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33

약 250만 명이 이스라엘로 몰려왔다. 수천 년간 써온 언어가 달랐던 그들이 겪을 혼란은 그들만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계승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사수하며 살았던 그들의 전통 교육으로 해결되었다.<sup>26)</sup>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그들의 전통 교육방식 중 가장 주가 되며 성경 공부 뿐 아니라 인문 고전, 일반 학문을 공부 할 때도 행해진 이들의 공부 방법에 주가 되는 학습법이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텍스트인 《토라》는 기록된 성경으로서 모세오경(五經)을 말한다. 신이 주시는 말씀 곧, 진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르치고 연구하며 토라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르친다. 따라서 토라를 크게 읽고 질문하며 대화하는 습관은 유대인들과 떨어질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이스라엘을 존속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sup>27)</sup>

## 2.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원리 및 교육적 효과

### 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원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두 사람이 대화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 서두에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먼저는 텍스트를 설명하는 능력이고 나머지는 교사의 직접적 도움 없이 다른 사람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방법적 특성 때문에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함께하는 두 사람은 자신의 학습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의 학습 또한 책임을 지며 공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Kent(2010)에 의하면 하브루타(Havruta)는 학습자 두 사람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둘 사이에 텍스트가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므로 둘이 아닌 셋의 상호작용

26) 김형중, 전계서, p.17

27) 서윤주, 『하브루타(Havruta)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과수업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12

의 활동이라고도 하였다.

Kent(2010)는 하브루타(Havruta)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하브루타(Havruta) 토론의 원리를 “경청하기(listening)와 확인하기(articulating)”, “반문하기(wondering)와 초점맞추기(focusing)”, “지지하기(supporting)와 도전하기(challenging)”로 제시하였다.

경청하기(listening)와 확인하기(articulating)는 하브루타(Havruta)학습이 시작되고 계속 유지해나가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상대의 생각에 좀 더 집중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과정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와 아이디어의 발전의 향상을 기대한다. 반문하기(wondering)와 초점맞추기(focusing)는 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 반문이 필요하며, 텍스트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하기(supporting)와 도전하기(challenging)를 통해서 생각을 견고히 할 수 있다. 지지하기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격려를 제공하고 보다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다. 도전하기를 통하여 아이디어의 문제점, 지식의 누락, 반대되는 의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하브루타(Havruta)의 토론 원리 Kent(2010)		
경청하기(listening)	반문하기(wondering)	지지하기(supporting)
확인하기(articulating)	초점맞추기(focusing)	도전하기(challenging)

<표-2> 하브루타(Havruta)의 토론 원리 Kent(2010)

이성일(2018)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28)</sup>

1단계는 개별 활동이다. 개인별로 교과서를 읽고 질문을 만들거나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든다. 2단계는 짝 토론이다. 개인별로 만든 질문이나 해결방안을 짝과 의논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선택한다. 가능한 자신의 생각이 선

28) 이성일, 『하브루타로 교과수업을 디자인하다』 맘에드림출판, 2019, p.16

택될 수 있도록 상대를 설득한다. 이때 활발한 대화와 토론, 논쟁이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경청의 자세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고력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용의 태도가 길러진다. 3단계는 모둠 토론이다. 짝 토론에서 만든 질문이나 해결 방안을 모둠에서 토론해 더 나은 질문이나 해결 방안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을 가다듬어 질문과 해결 방안의 수준을 높인다. 활발한 의사소통과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모둠별로 질문이나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기록한다. 발표를 통해 ‘개별 활동→짝 토론→모둠 토론’으로 만들어진 생각이 전체 학생과 공유된다.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발표를 생략하고 판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양한 질문과 해결 방안을 읽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5단계는 반 전체가 쉬우르하는 단계이다. 논쟁한 내용을 교사가 전체 학생과 질문과 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제까지 나온 내용 중심으로 전체 학생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이때에도 설명보다는 수업내용을 정리하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한다. 또한 질문을 수업 내용과 연결해 학생들이 종합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절차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순번	활동	내용
1	개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읽고 질문 만들기</li> <li>-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만들기</li> </ul>
2	짝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 설득하기</li> <li>- 더 좋은 질문이나 해결 방안 선택하기</li> <li>- 질문과 해결 방안 수준 높이기</li> </ul>
3	모둠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발한 의사소통</li> <li>- 더 좋은 질문이나 해결방안 선택하기</li> <li>- 질문과 해결 방안 수준 높이기</li> </ul>

4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내용의 전체공유</li> <li>- 학생: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서 사고확장 및 수업내용과 연결</li> </ul>
5	쉬우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전체학생의 질문과 토론 정리</li> <li>- 학생들이 빠뜨린 내용 언급</li> <li>- 최고의 질문 선택 후 전체 토론으로 연결</li> <li>- 수업 정리: 요약, 배우고 느낀 점 등</li> </ul>

<표-3>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절차

전성수는 탈무드 논쟁 원리를 참고하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원리를 다음<표-4>와 같이 제시한다.<sup>29)</sup>

<p>첫째, 학습자에게 지시나 요구, 설명보다 질문을 많이 한다.</p> <p>둘째, 학습자가 틀린 답을 말해도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다시 질문으로 대답한다.</p> <p>셋째, 하브루타(Havruta)학습 시작 전 학습자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게 한다.</p> <p>넷째, 학습자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한다.</p> <p>다섯째,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사고력 신장에 목적이 있다.</p> <p>여섯째, 질문하고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보며 집중하고, 어떤 대답도 수용한다.</p> <p>일곱째, 학습자의 대답에서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칭찬한다.</p> <p>여덟째, 남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p> <p>아홉째, 모르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찾아보게 한다.</p> <p>열 번째, 많은 내용보다는 한 가지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한다.</p> <p>열한 번째, 어려운 내용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여 학습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p>
--

<표-4>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원리

29) 전성수, 『질문이 있는 교실』 경향BP, 2015, P.79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이용한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수업 중에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에 속한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기본적으로 질문 만들기 → 짝 토론하기 → 모둠 토론하기 → 발표하기 → 전체 토론하기(쉬우르<sup>30)</sup>)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5가지 학습 모형이 있다.

본문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토론하는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 논쟁할 주제, 이슈를 정한 다음 논쟁을 중심으로 짝과 토론하고 모둠 토론 진행하는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 비교 대상을 정한 다음 자세히 조사하고 질문을 만들어 비교하는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 가르치고 배울 범위를 정하고 철저히 공부한 다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Havruta)’, 교사가 학생들과 만들어낸 문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하는 ‘문제만들기 하브루타(Havruta)’가 이에 해당된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미술감상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은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다. 질문은 모든 학문의 출발이며 공부하는 모르는 것을 묻고 배우는 것이다. 조벽 교수는 “최고의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하는 수업이다.”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분석하고 읽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질문을 만들려면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이때 뇌를 자극해 사고력을 촉진한다. ‘만약에’, ‘왜 그럴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시하고 생각을 지속하게 된다.

---

30) 쉬우르란, 예시바에서 짝과 탈무드 논쟁을 한 내용을 랍비(교사)가 전체 학생과 질문과 토론을 하며 대화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1)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순번	내용	방법
1	텍스트 읽고 질문 만들기	질문 만들기
2	만든 질문 유형별로 구분하기	
3	만든 질문으로 짝과 토론하기	짝 토론
4	질문 중에서 짝과 합의한 최고의 질문 뽑기	모둠 토론
5	최고의 질문을 가지고 모둠별로 토론하기	
6	모둠 최고의 질문 뽑기	
7	뽑은 질문으로 토론하기	
8	내용 정리하기	발표
9	모둠 발표하기	
10	교사와 전체 쉬우르	쉬우르

<표-5>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질문을 만들어 짝과 토론 후 모둠과 토론하고 발표를 한 뒤 전체 쉬우르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짝과 뽑은 가장 좋은 질문을 다음 단계에서 논쟁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를 철저히 읽고 질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질문 만드는 시간을 준다. 질문들이 만들어지면 그 질문을 토대로 짝과 토론을 한다. 질문하는 사람은 먼저 질문과 반박을 하며 공격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논리적 증거를 대면서 방어를 한다. 어느 정도 토론이 마무리가 되면 만든 질문 중 짝과 합의해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선택한다. 그 질문으로 모둠 토론을 하고, 다시 좋은 질문을 뽑는다. 뽑은 질문과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전체 쉬우르를 한다. 쉬우르를 할 때는 교사가 주로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재질문을 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답을 찾아 낼 수 있도록 이끈다.

## (2)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순번	내용	방법
1	논쟁의 주제 정하기	논제 조사하기
2	논제 입장 정하기(찬성, 반대)	
3	각 입장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기	
4	각 입장에 따라 짝지어 논쟁하기	짝 토론
5	짝과 논쟁을 통해 입장 정하기	
6	각자의 입장 내놓고 모둠별 토론하기	모둠 토론
7	모둠별 입장 정하기	
8	입장의 근거 정리하기	발표
9	모듬의 입장과 정리한 근거 발표하기	
10	교사와 전체 쉬우르	쉬우르

<표-6>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텍스트에서 논제를 뽑거나 학생들의 평소에 관심 이슈를 논제로 정해 짝, 모듬과 논쟁하는 방법이다. 논제는 찬반의 입장을 명확히 가를 수 있고 서로 대립되는 논제면 어떠한 것도 상관없다. 다만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논제여야 한다. 조사한 자료를 근거 삼아 짝과 논쟁을 하고 찬반 중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한 번 더 정리한다. 이후 모듬과 논쟁을 하고 근거를 정리 하여 발표를 한 후 <표-6>에서와 같이 쉬우르를 통해 마무리한다.

### (3)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순번	내용	방법
1	비교 대상 정하기	비교 대상 정하기
2	비교 대상 철저히 조사하기	조사, 질문 만들기
3	질문 만들기	
4	질문을 심화, 내용, 적용, 메타로 구분해 질문 순서 정하기	
5	짜을 지어 토론하기	짜 토론
6	짜과 좋은 질문 고르기	
7	뽑은 질문으로 모둠과 토론하기	모둠 토론
8	가장 좋은 질문을 고른 후 집중 토론하기	
9	질문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발표
10	교사가 질문을 중심으로 주제에 맞게 개념설명하고 쉬우르 하기	쉬우르

<표-7>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위 표는 비교중심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을 과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텍스트에서 비교 대상을 정한 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고 질문을 뽑은 다음, 질문을 대상으로 비교하고 대상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이다. 비교를 통해 토론을 자극하고, 사고를 자극하며 차이점과 유사점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된다. 비교 대상을 선정 할 때 학생들의 호기심이 자극된다. 비교 대상이 정해지면, 차이점과 유사점을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를 한 뒤 질문을 만든다. 이를 가지고 짜 토론과 모둠 토론을 하며 가장 좋은 질문을 뽑고 발표를 하고 전체 쉬우르를 한다.

**(4)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순번	내용	방법
1	교재 범위 나누기	내용 공부하기
2	말은 부분 철저히 공부하기	
3	한명이 먼저 친구 가르치기	친구 가르치기
4	배우는 친구는 배우며 질문하기	배우면서 질문하기
5	입장을 바꿔 가르치기	입장 바꿔 가르치기
6	배우며 질문하기	이해 못한 내용 질문하기
7	토론하면 이해 못한 내용 정리하기	
8	이해 못한 내용 재 질문하기	
9	쉬우르 하기	쉬우르

<표-8>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위 표는 서로 가르치는 과정의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이다. 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르칠 범위를 정하고 철저히 공부를 하여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한다. 가르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이해 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며, 친구의 질문에 마당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공부는 매우 중요하다. 짝의 수준은 양 쪽이 비슷한 경우가 좋고 설명을 들을 때는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질문을 한다.

**(5) 문제만들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학교에서는 수업 후 수업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실시한다. 시험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학생

이 직접 시험 문제를 만들기도 하며,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 인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인지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9>와 같이 학생들은 문제를 만드는 과정과 이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

순번	내용	방법
1	교재 범위 철저히 연구하기	문제 만들기
2	문제 만들기	주관식, 객관식, 서술식
3	짚과 토론하여 문제 다듬기	짚과 문제 다듬기
4	좋은 문제 골라내기	
5	모듬별 토론하여 문제 다듬기	모듬과 문제 다듬기
6	모듬에서 좋은 문제 뽑기	
7	골라낸 문제를 출제 의도 정리하기	
8	문제와 의도 정리하여 발표하기	문제 발표
9	쉬우르 하기	쉬우르

<표-9> 문제만들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수업 구성표

수업한 내용에서 범위를 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오는 과제를 수행 한다. 범위는 비교적 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문제의 수를 적게 하여 부담을 없애고 점차 수를 늘려 간다. 학생들에게 범위를 주고나면 문제 유형과 문제 개수도 정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만들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게 되고 점점 높은 차원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짚과 모듬 토론,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쉬우르 과정에서는 교사가 만들어온 문제에 대해 좋은 점을 칭찬하고 보완할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진행하면 된다.

## 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교육적 효과

세갈(2003)에 의하면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인지적 측면에서 두 학습자는 각자의 지식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더 발전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소리 내어 대화하므로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으로 공부할 때 질문과 토론의 과정에서 대답은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고 또 그 대답에 질문하며 계속 탐구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토론이 더 전문화되고 깊은 논쟁으로 이어져 사고력을 확장 시켜준다. 이는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정서적 측면에서의 이점이 될 수 있다. 또 학습자들이 소리 내어 읽는 행위를 포함하여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며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인 학습 참여의 원동력이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토론으로 이루어져 함께 학습하는 학습자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경청하는 능력, 의사소통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집단 창의성이 좋아지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sup>31)</sup> 이는 학습하지 않는 동안의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학습자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교육적 효과는 단순히 암기해서 알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학습자의 뇌를 자극하여 사고력 확장과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주며, 대화와 토론 능력 및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김금선(2015)은 “아이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행동이나 결과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활용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결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게 된다.”

31) 김세범, 『하브루타를 통한 교수방법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학술지-신학과목회, 2015, pp.389~415

32) 허영주, 『하브루타 활용 수업이 개인 및 집단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교양교육연구 2016, pp.73~106

라고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였다.<sup>33)</sup>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이용한 학습 토라와 탈무드 등의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하며 나의 생각에 친구의 생각을 더해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 시킨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경청, 설득능력을 터득하고, 질문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내적 힘을 기르게 된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남과 다른 생각을 요구하고 지지한다.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강조한다.<sup>34)</sup>

양동일, 김정완(2016)은 대화와 토론과 같은 ‘말’로 하는 학습법인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능력’(Meta cognition Ability)<sup>35)</sup>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설명한다. 성적 상위 1% 학생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메타인지 능력’은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고 나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는 능력을 말한다.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상대에게 설명해 주고 이를 통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자기만의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동시에 찾아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이다.<sup>36)</sup>

미국의 National Training Lab(미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연구 발표한 학습 피라미드는 학습효과에 관한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한다. 학습 피라미드는 외부정보가 우리 뇌에 기억되는 비율을 학습방법 별로 정리한 것이다. 여러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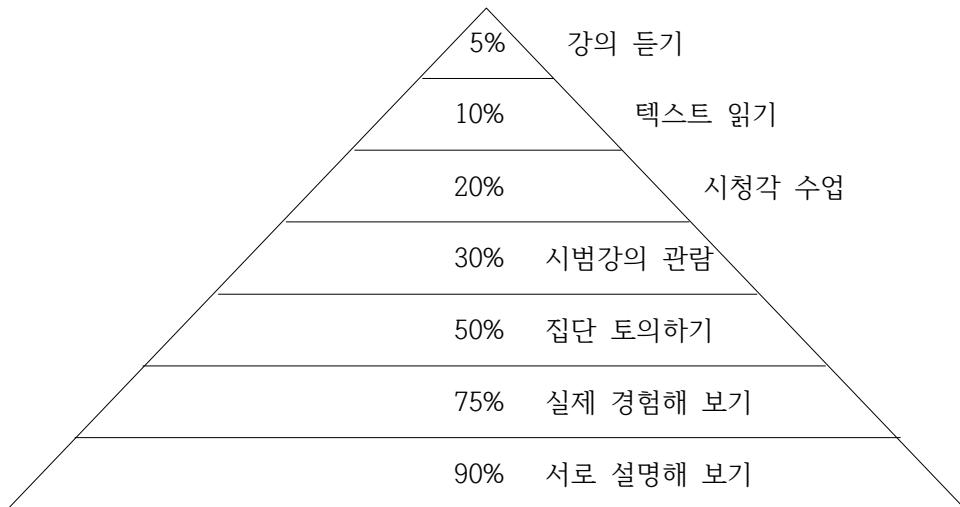
33) 김금선, 『하브루타로 크는 아이들』 매경출판사, 2015, p.117

34) 상계서, p.5

35) 메타인지 능력(Meta cognition Ability)이란, 자신의 사고에 대한 조절과 통제, 즉 학습 과정이나 인지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절,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36) 양동일·김정완,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 에문출판,2016, p.23~26

방법으로 공부 한 후, 24시간 후에 남아 있는 기억의 결과를 보면 강의 듣기 5%, 읽기 10%, 시청각 수업 20%, 시범 강의 듣기 30%, 집단토의 50%, 실제 해보기 75%, 서로 설명하기 90%의 효율을 갖는 결과를 보여준다. 서로 설명하기는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다. 50%를 중심으로 피라미드의 위쪽은 수동적인 학습방법이고 아래쪽은 참여하는 학습방법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사 중심의 듣는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효율성으로 볼 때 5%로 최저이다. 반면 짝과 서로 설명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90%의 기억이 남는다는 결과를 나타낸다.<sup>37)</sup>



<표-10> 학습 효율성 비교(공부 24시간 후)

한국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교사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듣는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학생의 수가 많아 쉽지 않다는 점이 있지만, 학교 교육의 초점이 시험에 맞추어져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일방적으로 듣고 외우고 시험을 본 후 잊어버리는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38)</sup>

이는 친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1시간 공부한 사람과 동일 효과를 내려면 혼

37) EBS 방송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2014, 5부 '말문을 터라'

38) 김금선, 전계서, p.73~75



자 서 책을 보면서 공부했을 경우에는 9시간, 강의 듣기는 18시간이 걸린다. 결국 친구를 가르치는 학습은 강의를 듣는 학습의 18배의 효율성을 갖는다.

EBS 방송에서 ‘왜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5부작에 걸쳐 방영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공부 방법’과 ‘조용한 공부 방법’을 비교하는 실험을 소개한다. 이것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우리나라 입시에도 적합한지를 비교 실험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고 과목 중에서 사회탐구영역의 서양사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대학생 8명씩의 두 그룹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같은 범위를 3시간 공부한 후 같은 시험 문제를 풀어 그 결과를 확인 하는 실험이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에게 익숙한 혼자 하는 조용한 공부를 하고, 다른 그룹은 말을 하면서 서로를 가르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3시간 뒤에 단답형의 5문제와 수능형의 5문제, 서술형의 5문제의 유형별로 5문제씩을 푸는 시험을 본다. 이 시험의 결과를 비교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단답형은 6:12로 2배의 차이를 보였고 수능형은 17:21, 서술형은 23:46 차이가 났다.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조용한 공부는 48점이고 말하는 공부는 76점의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 실험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시험에도 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입시 공부에도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sup>39)</sup>

---

39) EBS 방송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2014, 5부 ‘말문을 터라’

## 제3장 미술감상 교육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교육적 가치

### 제1절 미술감상 교육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연계성

본 절에서는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미술감상 교육과의 연계성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영역을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을 도출하여 미술감상 교육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필요성을 서술하고자한다 .

#### 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

2015개정 교육과정 미술 영역의 내용은 미술의 본질과 역할, 미술과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 미술 교과역역의 역량, 내용 영역별 교수·학습의 중점 사항, 학교급별 중점 사항을 담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sup>40)</sup>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의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은 바른 인성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핵심 교과이다. 미술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시각 이미지를 매개로 소통하여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미술 활동은 새

40)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13, 교육부 2015, p.3

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창조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sup>41)</sup>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의 ‘성격’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전체 취지와 맥락을 함께하여 미술 교과 역량을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표-11>는 미술 교과 핵심역량 다섯 가지의 정의를 나타낸다.<sup>42)</sup>

순번	미술교과 핵심 역량	정의
1	미적 감수성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 할 수 있는 능력
2	시각적 소통 능력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소통 할 수 있는 능력
3	창의 융합 능력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는 능력
4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
5	자기 주도 미술 학습 능력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계발, 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

<표-11>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핵심역량의 정의

41) 교육부, 전계서, p.3

42) 상계서, p.4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 학문중심 교육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미술감상과 비평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각 문화 교육을 도입하여 미술을 포함한 모든 시각 현상에 대한 감상 및 비평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체계를 유지하되, ‘감상’ 영역에서 ‘미술사’와 ‘미술비평’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미술감상 및 비평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시켜 구체적인 양상으로 거론되었다.<sup>43)</sup>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에 성취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의 시대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미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미술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 변천과정과 지역적,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파악 할 수 있고, 미술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작품의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미술 전시를 기획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sup>44)</sup>

미술과 핵심역량의 ‘성격’의 하위 내용에는 체험, 표현, 감상이 있다.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체험	지각	감각을 통한 인식은 자신과 환경, 세계와의 관계를 깨닫는 바탕이 됨.	자신과 환경	탐색하기 발견하기 상호작용하기 활용하기 모색하기 관련짓기
	소통	이미지는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도구로서 시각문화를 형성함.	이미지와 시각문화	
	연결	미술은 타 학습영역,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삶의 문제해결에 활용됨.	미술과 다양한 분야 미술 관련 직업	

43) 김혜숙,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의 변천과 미술비평방법론 개선방안-미술교육연구논총』, 제 42호, 2015, pp.78-79

44) 교육부. 전개서, p.16.

표 현	발상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 상상, 구상하는 것은 표현에 토대가 됨.	주제와 의도	탐색하기 계획하기 점검하기 활용하기 표현하기
	제작	작품의 제작은 주제나 아이디어에 적합한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 매체 등을 계획하고 표현하며 성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조형 요소와 원리의 효과 표현매체	
감 상	이해	미술작품은 시대와 지역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짐.	미술의 변천과 맥락	설명하기 이해하기 해석하기 활용하기 전시기획하기
	비평	미술작품의 가치 판단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한 비평활동으로 이루어짐.	작품 해석 작품 전시	

<표-12>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내용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살펴보면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추구하는 바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중점을 두는 능력이다.<sup>45)</sup>

첫째, 교육과정은 자아정체성 확립에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삶과 진로에 관련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관리 역량을 추구한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역시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립을 돕는다. 학습의 주체가 학생 자신이고 교사는 조력자이다.<sup>46)</sup>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는 존재론적 대화를 함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sup>47)</sup>

45) 교육부, 전개서, p.39

46) 전성수, 양동일, 전개서, pp.26-27

47) 서윤주(2016). 전개서 p.18

둘째, 교육과정의 두 번째 핵심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전에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없기에 충분한 내용 숙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분석, 선택, 평가하고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힘이 길러진다. 또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만 목적에 두지 않고 능동적인 사고와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다.<sup>48)</sup>

셋째,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교육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타인과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학습법이므로 다양한 견해와 시각, 관점을 수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통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동료와의 활발한 대화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생산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만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다. 즉, 폭넓은 기초 지식을 토대로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자발성, 개발성 등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데에 도움을 준다.<sup>49)</sup>

넷째,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교육부는 강조한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다양한 견해와 관점,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며 문화적 소양과 문화적 상상력,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sup>50)</sup>

48) 백미숙, 『토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59

49) 정소임, 전계서, p.39

50) 상계서, p.41

다섯째,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이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기본인 토론은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에 즉석으로 반론하고 재반박하며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습이 반복되면 즉석에서 내용을 구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된다.<sup>51)</sup>

여섯째, 지역, 나라,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다. 하브루타 학습법은 학습에 뒤쳐지는 친구가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며 주제에서 벗어난 의견을 내거나, 논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를 도와주면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인식능력, 윤리적 기질, 감수성을 함양 할 수 있으며 경청, 세심함, 책임, 진정성, 헌신, 열린 마음과 같은 윤리적 성향이 점진적, 누적적으로 획득되어질 수 있다.<sup>52)</sup>

순번	핵심역량	핵심역량의 정의	핵심역량과 유사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 특징
1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줌.
2	지식정보 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다양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분석, 선택, 평가하고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힘이 길러짐.

51) 백미숙, 상계서, p.60

52) 서윤주, 전계서, p.59

3	창의적 사고 역량	<p>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p>	<p>타인과 다른 새로운 생각, 즉 창의적 생각을 요구하며 다양한 견해와 시각, 관점을 수용하는 학습법으로 폭넓은 기초 지식을 토대로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자발성, 개발성 등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데에 도움 줌.</p>
4	심미적 감성 역량	<p>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p>	<p>다양한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며 문화적 소양과 문화적 상상력, 감수성을 기를 수 있음.</p>
5	의사소통 역량	<p>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p>	<p>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법.</p>
6	공동체 역량	<p>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p>	<p>논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에게 도움을 줌. 다양한 인식능력, 윤리적 기질,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경청, 세심함, 책임, 진정성, 헌신, 열린 마음과 같은 윤리적 성향을 기를 수 있음.</p>

<표-13>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교육과정이 유도하고 있는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의 성격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DBAE)<sup>53)</sup>을 반영하고 있다. 미술은 표현 중심의



실기 과목을 넘어 학문 중심과목으로 미술창작, 미학, 미술비평으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DBAE)은 미술창작의 비중을 줄이고 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두었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체계적인 사고를 위해 짝과의 토론, 모둠 토론, 전체 토론에 이르러 체계적인 학문 중심의 감상교육을 이룰 수 있다. 맥락 없이 주어진 지식을 외우는 단순암기가 아닌 자신이 가진 지식과 교과내의 지식의 연결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텍스트의 지식과 자신의 선형적 지식, 다른 사람의 지식을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문화할 수 있는 점이 교육과정과의 유사점이다.

둘째, 시각적 소통의 미술교육이 강조되었다. 현대 사회의 시각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시각 문화의 가치를 알고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짝 토론과 모둠 토론, 전체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학습방법이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통해 타인과 사회와의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질문을 하려면 관찰하여야 하고, 관찰을 통하여 시각매체의 구성요소를 읽으며 시각적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미술 문화의 이해 능력을 강조하였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세계 문화 미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것이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이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다른 사람의 생각, 사상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학습법이다. 자신만의 의견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학습법이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통해서도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53) DBAE란,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의 약어로, 학문에 기초한 미술 교육을 뜻함.

넷째, 학습자 주도 학습을 강조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의미를 찾는 활동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의 교사의 강의 형식의 수동적인 학습 대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타인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진 학습 방법이다. 대화와 토론을 하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미술감상 수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현행 교육과정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상 교육에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순번	항목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교과 특징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의 특징
1	교수학습 특성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실기표현의 비중을 줄이고,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체계적,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함, 학습자의 뇌가 자극되고 사고력 확장에 도움을 줌.
2	소통 능력	시각적 소통 능력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과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활동) 강조함.	경청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설득의 능력 등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함.
3	이해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강조함.	타인의 생각을 이해, 공감하는 능력을 강조함.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강조함.	자발적 학습참여와 내적 동기유발 효과가 기대됨.

<표-14> 교육과정 미술교과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 비교

## 2. 미술감상 교육에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필요성

맥킴(Mckim)은 “미술의 이해에는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sup>54)</sup> 미술에 있어 언어의 필요성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식이 풍부한 관찰자는 그렇지 못한 관찰자보다 사물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식의 많은 부분이 언어와 관련되어 저장된다. 이때 언어는 사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촉매작용을 한다. 그는 정확한 언어 묘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각 심상과 기초의 언어지식을 연과 시킴으로써 시각적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 언어와 시각을 결합시킴으로써 보는 법이 훈련된다. 또한 양면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 즉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보는 방법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는 것은 실체와 존재하는 것, 즉 모든 정신적 육체적 감각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어구사 능력은 보는 능력에도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미술감상 영역에서 적절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은 감상자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고 사고를 확장하고 구체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을 객관화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드리며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기화 할 수 있다.<sup>55)</sup>

미술 작품의 구성요소, 눈에 보이는 시각적 요소를 읽은 후 대상 간의 관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미술감상이 더욱 명확해진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하여 미술감상 교육을 하였을 때, 짝과 의견을 가지고 질문하며 미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요소를 토대로 근거를 찾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정당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각 이미지를 읽어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타인의 생각에 내 생각이 더해져, 보다 풍요로운 감상에 이르게 된다. 작품에서 발견하게 된 미적 가치, 감각적 특질을

54) 김성숙,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7, p.12

55) 배여진,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통한 초등학교 6학년 미술감상 지도방안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26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대화나 비평을 통해 그 가치가 서로 확인될 때 효율적인 미술감상 교육이 될 것 이다.

유대인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과 비슷한 형식인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고대 교육 방법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있다. 그에게 대화는 단순히 무지를 깨닫고 지식만 습득하는 1차적 학습이 아닌 자신의 모호한 지식을 대화로 분명히 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 설명한다. 대화를 통해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지식을 상기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더함으로 사고력을 확장 시키는 것이 그가 설명하는 대화이다. 그는 교육적인 면에서 지식의 주인은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라 하였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객관적으로 대화이고 주관적으로는 경험과 자기반성이라고 보았으며 교사는 암시와 질문에 의한 자극자가 되어 학생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sup>56)</sup>

미술감상 교육에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했을 때 교육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자 감상할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미적 요소 발견이 가능하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서 즐기는 감상 역시 감상자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감상법이다. 자신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 할 때 자신의 머릿속의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게 되었을 때 감상의 내용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

둘째, 작품과 감상자 간에 생기는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더해져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적 효과가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 중에도 의사소통의 역량이 있다. 작품, 즉 텍스트를 읽어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논리 있게 표현하는 과정이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다.

셋째, 교사가 발문하는 수업에서 발전하여 학생간의 질문이 생성되어 보다 폭넓은 질문으로 감상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교사 혼자서 질문하고 학생들은

56) 목영해, 박균섭, 송도선, 강기수 『교육의 철학과 역사』 서울 교육과학사, 2010, p.166

답은 찾는 수동적인 감상수업 대신 질문을 만들며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감상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작품 감상을 거부감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감상자에게 작품을 보고 무엇이 느껴지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를 말해보라며 답변을 요구하는 감상 교육이었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질문 만들기가 주가 되는 학습방법이다. 작품을 보고 스스로 발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답을 요구하는 감상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섯째, 작품에 대한 생각을 언어로 정리하고 사고를 확장하여 언어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감상교육이 될 수 있다. 특히 상대와 대면해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민첩함과 순발력 뿐 아니라 발음과 목소리의 언어적 능력과 시선, 자세, 표정의 몸짓 등의 비언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와의 끊임 없는 커뮤니케이션과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하는 하브루타 토론을 습관화 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져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sup>57)</sup>

## 제2절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교육의 실제

미술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며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미술의 맥락적 개념이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감상이 구체적으로 실제 수업에 이루어지도록 변환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미술 작품을 보고, 느끼며, 해석, 판단해 보

---

57) 백미숙, 전계서, p.61

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으로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교수-학습 과정안 계획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각 차시마다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의 핵심 원리로 감상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 되었으며 그 학습 내용과 수업 모형은 <표-15>와 같다.

차시	성취기준	학습 내용	학습 모형
1차시	[9미03-03] 미술용어와 지식을	감상 관점을 알고 작품을 읽는다.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
2차시	활용해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작품을 관찰하고 비교하여 감상한다.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
3차시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논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토론한다.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

<표-15>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을 적용한 감상 수업의 차시별 학습 내용

설계한 감상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되었으며 1차시는 질문중심, 2차시는 비교중심, 3차시는 논쟁중심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으로 감상활동이 이루어진다. 각 차시별 감상 작품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의 설명 수업이 아닌 학생 주도의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되 차시마다 중심이 되는 수업 모형은 질문, 비교, 논쟁으로 차이를 두었다.

## 2. 차시별 수업 모형에 따른 흐름

본 수업은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감상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 전성수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모형 중 질문중심, 비교중심, 논쟁중심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전개한다.

질문중심 감상 수업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 주가 되며 다음 <표-16>과 같이 진행한다. 먼저 작품을 보고 조형요소, 조형원리, 재료와 표현방법 등을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질문을 만든다. 둘씩 짝을 지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대화 중 가장 좋은 질문을 뽑는다. 짝과 뽑은 질문으로 모둠과 토론하고 모둠별 가장 좋은 질문을 만든다. 모둠별로 선택한 최고의 질문과 토론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뽑은 질문,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듣고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분을 질문하며 정리한다.

순번	학습 단계	활동 내용
1	작품 만나기 (전체 활동)	- 작품에 대한 첫인상, 느낌 말하기
2	미적요소 찾기 (개별 활동)	- 객관적임 사실을 토대로 목록 작성하기
3	질문 만들기 (개별 활동)	- 미적요소 관계 분석하기(재료, 기법, 조형요소 등) - 작품 해석하기(작가의 의도, 작품의 의미, 주제해석) - 판단하기(잘된 부분, 전체적 조화 등)
4	짝 토론 (짝 활동)	- 짝과 질문하고 답하기 - 짝과 토론 후 가장 좋은 질문 뽑기
5	모둠 토론 (모둠 활동)	- 짝과 뽑은 질문으로 모둠 토론하기 - 최고의 질문 뽑고 토론하기 - 토론내용 정리하기

6	전체 토론 (전체 활동)	- 모둠토론 내용 발표하기
7	쉬우르 (전체 활동)	- 교사와 보충하며 정리하기

<표-16>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의 흐름

비교중심 미술감상 수업은 작품의 주제나 조형요소, 재료 및 작품 양식 등의 비교 관점을 설정하여 감상한다. 두 작품을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게 하거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비교 감상하는 수업으로 구성한다. 동일한 주제나 비슷한 구도,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 등 비교가 가능 하다면 수업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순번	학습 단계	활동 내용
1	비교 작품 정하기 (전체 활동)	- 비교 대상 작품의 첫인상, 느낌 말하기
2	미적 요소 찾기 (전체 활동)	- 객관적임 사실을 토대로 비교 목록 작성하기
3	질문 만들기 (개별 활동)	- 미적 요소, 작품 의미, 작품 배경을 내용으로 질문 만들기
4	짹 토론 (짹 활동)	- 짹과 질문하고 답하기 - 짹과 토론 후 가장 좋은 질문 뽑기
5	모둠 토론 (모둠 활동)	- 짹과 뽑은 질문으로 모둠 토론하기 - 최고의 질문 뽑고 토론하기 - 토론내용 정리하기
6	전체 토론 (전체 활동)	- 모둠토론 내용 발표하기
7	쉬우르 (전체 활동)	- 교사와 보충하며 정리하기

<표-17>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의 흐름



논쟁 중심의 논쟁할 논제를 정하고 짝과 일대일 논쟁을 통해 입장을 정하고 모둠별 토론 후 모둠의 입장을 정해 논제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수업형식으로 구성한다. 논제 조건은 찬성과 반대 중 그 가치가 어느 쪽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학생의 관심과 수준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순번	학습 단계	활동 내용
1	논제 정하기 (전체 활동)	-작품에 대한 첫인상, 느낌 말하기 -논제 정하기
2	입장 정하기 (개별 활동)	-찬성, 반대 입장 정하기 -근거 정리하기
3	짝과 논쟁 (짝 활동)	-짝과 논쟁 입장 정하기
4	모둠 논쟁 (모둠 활동)	-모둠 논쟁하기 -모둠의 입장 정하고 근거 정리하기
5	전체 토론 (전체 활동)	-모둠의 입장을 최종 변론하기
6	쉬우르 (전체 활동)	-교사와 보충하며 정리하기

<표-18>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의 흐름

### 3. 교수-학습 과정안

#### 가. 1차시 과정안

질문중심 감상 수업을 위해 이야기 거리가 많은 작품인 피카소의 작품인 <게르니카>를 선정하였다. 1차시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다음과 같다.

작품제목		피카소의 <게르니카>	차시	1/3
학습목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작품을 읽을 수 있다.	영역	감상
학습자료		ppt, 활동지	시간	45분
학습단계		학습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및 학습자료	
도입	작품 만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결 확인 및 상호인사</li> <li>▶학습목표 제시하기</li> <li>-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작품을 읽을 수 있다.</li> <li>▶작품 만나기</li> <li>-피카소의 &lt;게르니카&gt;작품 감상</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1&gt; 피카소 &lt;게르니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시대, 역사적 배경, 작가에 관하여 최소한으로 설명한다.</li> <li>▶학습 활동 안내하기</li> <li>-개별활동→짝 활동→모둠활동→전체활동</li> </ul>	-ppt	
전개	미적 요소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세히 관찰하기</li> <li>▶미적요소 찾기</li> <li>-색상 및 명암처리는 어떠한가?</li> <li>-그림의 구도는 어떠한가?</li> <li>-표현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li> </ul>		

	질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 만들기</li> <li>-작성된 목록을 생각하며 질문을 만든다.</li> <li>-재료, 기법, 작품 내용의 관계를 분석하여 질문을 만든다.</li> <li>-작가의 표현의도 무엇일까?</li> <li>-작품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li> <li>-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부분은 있다면?</li> <li>-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무엇이 느껴지는가?</li> <li>-희망의 상징적 요소는?</li> </ul>	<p>-ppt, 활동지</p> <p>-교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한다.</p>
	짚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행 순서와 방법 안내하기</li> <li>-짚과 순서를 정하고 질문과 답변을 순서대로 한다.</li> <li>▶짚과 질문 중 가장 좋은 질문 뽑기</li> <li>-짚과 합의하여 가장 좋은 질문을 뽑는다.</li> </ul>	
	모듬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듬별로 뽑힌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한다.</li> <li>-질문, 대답, 반박, 재 질문으로 자유롭게 토론한다.</li> <li>▶최고의 질문 뽑기</li> <li>▶뽑힌 질문으로 토론하기</li> <li>▶토론 내용 정리하기</li> </ul>	
	전체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듬별 발표하기</li> <li>-선정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발표한다</li> </ul>	
정리	쉬우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정리</li> <li>-모듬에서 해결하지 못한 내용,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정리한다.</li> <li>-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li> <li>▶다음 차시 예고</li> </ul>	

<표-19>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1차시는 질문중심 하브루타(Havruta) 미술감상 교수 학습 과정안으로 현대 미술 작품 중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만나기→미적요소 찾기→질문 만들기→토론하기→쉬우르 단계로 수업을 전개한다.

작품만나기 단계에서는 선정된 작품의 첫 느낌, 첫인상,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을 살피며 감상을 시작한다. 이때 교사는 필요 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에 관하여 설명한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질문 만들기를 위해 설명을 최소한으로 한다.

미적요소 찾기 단계에서는 질문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작품의 소재, 주제, 조형요소, 조형원리, 재료, 표현방법 등의 작품의 내용과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자세히 관찰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질문 만들기 단계에서는 작성한 미적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나 의미, 조형요소들의 상관관계, 작품의 가치에 관련하여 질문을 만든다. 질문 만들기가 어려울 경우 궁금한 점, 친구와 토론하고 싶은 내용으로 질문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질문의 수준이 향상되면 작품의 주제와 의미, 감상자 나름의 해석, 조형요소와 원리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토론단계는 만들어진 질문으로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며, 논리를 들어 반박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증거를 대며 방어한다. 질문에 질문이 더해지고 하나의 질문으로 길게 토론할 수 있다. 토론이 마무리되면 만들어진 질문에서 작과 합의하여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선택한다. 짝을 바꾸어 계속 진행 할 수 있고 모둠과 토론 할 수도 있다. 모둠으로 토론을 진행 할 경우 짝 토론에서 만들어진 질문을 제시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며 반박하고 다시 질문함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이 마무리 되면 모둠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선정한다. 선정된 질문과 이와 관련된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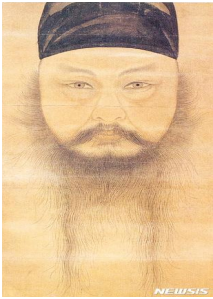

발표 단계는 짝이나 모둠별로 뽑은 질문과 토론 내용을 발표한다. 어떤 질문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전체 친구들에게 나누는 시간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쉬우르 단계에서는 교사가 전체 학생과 토론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다. 질문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며 학생 스스로가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나. 2차시 과정안

비교중심 감상 수업을 위해 유사한 주제의 작품인 윤두서어의 <자화상>, 알브레히트 뒤러의 <자화상>을 선정하였다. 2차시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다음과 같다.

작품제목	윤두서어의 <자화상>, 알브레히트 뒤러의 <자화상>		차시	2/3
학습목표	작품을 관찰하고 비교 할 수 있다.		영역	감상
학습자료	ppt, 활동지		시간	45분
학습단계	학습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및 학습자료
도입	비교 대상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결 확인 및 상호인사</li> <li>▶학습목표 제시하기</li> <li>-작품을 관찰하고 비교 할 수 있다.</li> <li>▶작품 만나기</li> <li>-윤두서어의 &lt;자화상&gt;, 알브레히트 뒤러의 &lt;자화상&gt; 작품 감상</li> <li>-감상에 필요한 동서양의 자화상의 특징을 최소한으로 설명한다.</li> <li>-질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시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li> </ul>	-ppt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lt;그림-2&gt;윤두서 자화상 &lt;그림-3&gt;뒤러 자화상</p> <p>▶ 학습 활동 안내하기 - 개별활동 → 짝 활동 → 모둠활동 → 전체활동</p>	
전개	미적 요소 찾기	<p>▶ 자세히 관찰하기</p> <p>▶ 비교 작품을 관찰하며 미적요소 찾기</p> <p>-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p> <p>- 윤두서의의 &lt;자화상&gt; 목록 작성한다.</p> <p>- 알브레히트 뒤러의 &lt;자화상&gt; 목록 작성한다.</p> <p>- 유사점, 차이점을 찾는다.</p>	<p>- ppt, 활동지</p> <p>- 교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한다.</p> <p>- 토론 시간을 정해서 한다.</p>
	질문 만들기	<p>▶ 질문 만들기</p> <p>- 작성된 비교 목록을 생각하며 질문을 만든다.</p> <p>- 재료, 기법, 작품 내용의 관계를 비교한다.</p> <p>- 작가의 의도, 작품의 의미를 비교한다.</p> <p>- 작품의 주제, 소재를 비교한다.</p>	
	짝 토론하기	<p>▶ 진행 순서와 방법 안내하기</p> <p>- 짝과 순서를 정하고 질문과 답변을 순서대로 한다.</p> <p>▶ 짝과 질문 중 가장 좋은 질문 뽑기</p> <p>- 짝과 합의하여 가장 좋은 질문을 뽑는다.</p>	
	모듬 토론하기	<p>▶ 모듬별로 뽑힌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한다.</p> <p>- 질문, 대답, 반박, 재질문으로 자유롭게 토론한다.</p> <p>▶ 최고의 질문 뽑기</p> <p>▶ 뽑힌 질문으로 토론하기</p>	

		▶ 토론 내용 정리하기	
	전체 토론하기	▶ 모둠별 발표하기 - 선정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내용을 발표한다	
정리	쉬우르하기	▶ 학습정리 - 모둠에서 해결하지 못한 내용,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정리한다.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 다음 차시 예고	

<표-20>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

2차시는 비교중심 하브루타(Havruta) 미술감상 교수 학습 과정안으로 비교 작품 정하기 → 미적 요소 찾기 → 질문 만들기 → 토론하기 → 쉬우르 단계로 이루어진다.

비교 작품 정하기 단계에서는 비교 가능한, 비교할 요소가 많은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의 첫인상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작품선정은 미리 교사가 준비하고 2~4가지로 작품의 수는 제한한다.

미적 요소 찾기 단계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목록을 작성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조형요소를 토대로 작성하며 시대적 배경이나 작품의 정보를 추측 할 수 있는 요소는 교사가 판단하여 제시한다.

질문 만들기 단계에서는 작성한 목록을 바탕으로 작품의 유사점, 차이점, 상관관계에 관한 질문을 만든다. 질문의 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작품의 난이도에 따라 수를 조정 한다.



토론 단계에서는 만든 질문으로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논리적 근거를 대며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질문 후에 대답하고 후속

질문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질문으로 길게 토론할 수 있다. 토론이 마무리되면 짝과 합의하여 가장 좋은 질문을 뽑는다. 다른 사람이 생각 할 수 없는 하지만 논쟁이 치열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모둠토론으로 이어지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발표를 한다.

쉬우르 단계에서는 교사가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이때 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작품의 미적요소, 시대적 배경을 추가 설명한다.

### 다. 3차시 과정안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 과정안은 다음과 같다.

작품제목	바스키아<기도하는 사람>, 잭슨 폴락<No.5>		차시	3/3
학습목표	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논쟁할 수 있다.		영역	감상
학습자료	ppt, 활동지		시간	45분
학습단계	학습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및 학습자료
도입	논제 정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결 확인 및 상호인사</li> <li>▶학습목표 제시하기</li> <li>-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논쟁 할 수 있다.</li> <li>▶작품 만나기</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lt;그림-4&gt;바스키아 &lt;속물들 Philistines&gt;                      &lt;그림-5&gt;잭슨 폴락 &lt;No.5&gt;</p>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시대, 역사적 배경, 작가에 관하여 최소한으로 설명한다.</li> <li>-논제가 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한다.</li> <li>비싼 그림이 훌륭한 그림이다?</li> <li>낙서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li> <li>▶학습 활동 안내하기</li> <li>-개별활동→짝 활동→모듬활동→전체활동</li> </ul>	
전개	입장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찬성, 반대 입장 정하기</li> <li>▶입장의 근거 정리하기</li> <li>-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입장의 근거를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t, 활동지</li> <li>-교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한다.</li> <li>-토론시간을 정해준다.</li> </ul>
	짝 논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짝 논쟁하기</li> <li>-서로의 입장을 제시한다.</li> <li>-반론의 제시하며 논쟁한다.</li> <li>▶짝과 합의된 입장 정하기</li> <li>-짝과 합의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한다.</li> <li>-근거를 정리한다.</li> </ul>	
	모듬 논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듬 논쟁하기</li> <li>-반론을 제시하며 논쟁한다.</li> <li>▶모듬 별로 입장을 정하기</li> <li>▶입장의 근거를 정리하기</li> </ul>	
	최종 변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듬별 발표하기</li> <li>-모듬별로 최종 입장을 찬성과 반대 순으로 번갈아가며 발표한다.</li> </ul>	
정리	쉬우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정리</li> <li>-모듬에서 해결하지 못한 내용,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정리한다.</li> <li>-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li> <li>▶다음 차시 예고</li> </ul>	

<표-21>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

논쟁은 쟁점을 두고 서로 반대되는 두 입장이 논리적 근거를 대며 싸우는 것을 말한다. 논쟁중심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은 논제를 정하고 짝, 모둠과 논쟁하는 수업이다. 수업의 진행은 논제 정하기 → 입장 정하기 → 논쟁하기 → 발표하기 → 쉬우르 단계로 진행한다.

논제 정하기 단계에서는 작품을 제시하고 작품과 관련된 논제를 정한다. 논제는 찬성과 반대를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쟁점의 선호도는 찬성과 반대 중 어느 것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입장 정하기 단계에서는 논제에 대해 짝과 서로의 입장을 정한다. 짝과 반대 의견일 수도 같은 의견일 수도 있다. 같은 의견이면 그 나름대로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며 짝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인 근거를 대며 의견을 제시한다.

논쟁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편을 향한 질문, 반론 제기 등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토론한다. 논쟁이 마무리되면 찬성과 반대 중 짝과 의논하여 팀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정리한다. 짝과의 입장을 바탕으로 모둠과 논쟁하고 뒷받침할 내용을 정리한다.

발표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정해진 입장을 발표하고 이어서 반대편의 입장을 발표한다.

쉬우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논쟁한 내용, 해결하지 못한 내용을 듣고 교사가 질문으로 해결하고 돕는다.

## 제4장 결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시각 매체와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각 현상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능력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5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위해 교육목표를 개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육목표를 성취 할 수 있는 수업을 요구 하고 있다.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 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핵심역량을 강조하며 미술 교과를 통해 이와 같은 성취목표를 달성하기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작품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길러내는 감상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와 교육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미술감상 수업을 제안하였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짝과의 질문, 토론, 논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최상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 소통 능력을 길러내는 학습법이다. 본 연구 2장에서는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원리와 교육적 효과를 참고문헌을 통해 서술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유사성을 선행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이 교육과정의 성격과 성취목표를 이루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미술과 내용체계에 맞춘 미술감상 수업과정안을 제안하였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은 학습자가 미술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하고 주체적으로 감상을 표현하며, 미적 안목과 비평 능력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학습법이다. 혼자서 감상할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미적요소 발견이 가능 하며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핵심역량을 성취하는데 긍정적인 학습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창의·융합에 효과적인 학습법임을 본 연구 2장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교육적 효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인 학습법인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통해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유사점이 있으며 미술과 교과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3장에서 2015 미술과 교육과정과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성격에 유사성을 밝히고 미술과 교과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미술과 내용체계에 맞춘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한 미술감상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중심, 비교중심, 논쟁중심의 3차시에 걸친 수업과정안을 제시함으로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을 적용하여 미술감상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교육적 효과는 크지만 모든 교과, 모든 수업에 하브루타(Havruta)활동만을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거꾸로 학습, 플립 러닝, 프로젝트 학습 등 교과의 특성과 수업 주제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한다거나 평가만을 위한 단순 암기학습에는 적합하지 않다. 견고한 스키마 형성과 심도 있는 학습 이해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학습법이다.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은 지식의 이해와 학습 내적 동기, 창의성 신장, 인성 함양 등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습법으로 평생교육의 장기적 안목으로 대해야 한다.

본 연구 자료가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 할 수 있는 자료로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하브루타(Havruta)학습법의 미술과 및 타 교과별 적용 방안이 개발되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일어 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13, 교육부 2015  
 김금선, 『하브루타로 크는 아이들』 매경출판사, 2015  
 김성숙,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7  
 김형종, 『테필린』 솔로몬출판, 2014  
 류지영, 『미술감상 교육 수업의 구조와 감상 기술』 미진사, 2011  
 목영해, 박균섭, 송도선, 강기수 『교육의 철학과 역사』 서울 교육과학사, 2010  
 박휘락, 『미술감상과 비술비평 교육』 시공사, 2003  
 백미숙, 『토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양동일·김정완,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 예문출판, 2016  
 이성일, 『하브루타로 교과수업을 디자인하다』 맘에드림출판, 2019  
 임정기, 이성도, 김광희 공저,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전성수, 『하브루타(Havruta)로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낸 유대인 엄마처럼 격려+질문으로 답하라』 국민출판, 2014  
 전성수, 『질문이 있는 교실』 경향BP, 2015  
 전성수, 『최고의 공부법-유대인 하브루타의 비밀』 경향BP, 2014  
 전성수·양동일,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Havruta)』 라이온북스, 2014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미술관교육학, 교육과학사』 2000  
 헤즈키 아리엘리, 김지자, 『탈무드 하브루타(Havruta)러닝』 국제인재개발센터, 2015

### 학술지

- 김세범, 『하브루타를 통한 교수방법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학술지-신학 과목회, 2015

- 김형종, 『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독교신문사, 2014
- 김혜숙,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의 변천과 미술비평방법론 개선방안-미술교육연구논총』, 제 42호, 2015
-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 미술교육학 제3판, 교육과학사, 2008
- 정선영, 최현정, 『이스라엘의 하브루타식 온라인 토론활동이 대학생들의 토론능력 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 『한민족 지오그래피(Korea Geography)』 사단법인 한민족 공동체 발전위원회, 2004
- 허영주, 『하브루타 활용 수업이 개인 및 집단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교양교육연구2016
- EBS 방송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2014, 5부 ‘말문을 터라’ 2016
- Segal Aliza, Havruta study: History, Benefits, and Enhancements. Academy for Torah Initiatives and Directions (Jerusalem, Israel) SO035(2003), pp.465-468
- Kent, O. 『A Theory of Havruta Learning. Journal of Journal of JewishEducation』 2010, pp.215~245

## 학위논문

- 고춘자,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미술감상 교수학습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아름, 『하브루타 학습방법을 적용한 서양 음악 수업지도안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김진혁, 『거꾸로 학습과 하브루타를 적용한 중학교 장구수업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도혜리, 『수용 미학적 미술감상 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배여진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통한 초등학교 6학년 미술감상 지도방안 연구』

-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서윤주, 『하브루타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과수업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  
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신화윤,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중학교 미술감상지도 연계방안』 숙명여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 이홍주, 『하브루타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강은정, 『하브루타 수업이 고등학교 학생의 지리과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소임, 『유대인의 '탈무드 하브루타에 함축된' 존재를 위한 학습'의 의미』 아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최순실, 『감상의 방법 및 관점을 적용한 작품 감상 지도의 방법적 접근』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